

무주 다목적 생활체육센터 건립

2019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 선정... 국민체육진흥기금 18억원 확보

무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9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8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체육시설 부문에 선정된 무주군은 기존 무주 국민체육센터 시설 기능 확충을 위해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다목적 체육센터에는 실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비롯해 다목적실과 샤워실,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등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설 개·보수를

으로 확보한 8억 원은 수달수영장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투입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최라돈 체육진흥 팀장은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과 함께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역현실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주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전국 대회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2019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과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를 통해 국민체력 증진 및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지역여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을 심사해 국민체육센터 일반형과 생활밀착형,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소도시농촌형, 중대도시형, 수영장형, 산업단지복합형,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노후·안전관련 긴급·장애이편의 부문, 복합화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부문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이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고 확대 보급하기 위해 목이버섯 재배 소득화 사업을 추진한다.

진안군, 목이버섯 확대 보급

기존 하우스 660㎡ 정비 재배 지원

진안군이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고 확대 보급하기 위해 천연 비타민 D의 대표식품인 목이버섯 재배 소득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소득화 시범사업은 영지나 표고버섯 하우스 등 기존 하우스 660㎡를 정비하여 목이버섯 국내육성 품종의 재배를 지원하게 된다.

봄 재배의 경우 3월말에 정식하여 6월부터 한달 정도 수확작업이 진행되며, 이렇게 생산된 버섯은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 할 계획이다.

목이버섯은 주로 중국산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건조버섯으로 유통되고 있었으나,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국내육성품종인 현유를

개발하여 국내산 톱밥배지에서 우리 품종의 버섯이 재배·유통될 수 있게 됐다.

중국 품종에 비해 수확성이 20% 이상 향상되고 봄, 가을 연간 2회 재배가 가능하며 재배기간이 10일 정도 단축되는 등 농가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진안에서 재배한 목이버섯은 밥냇의 기온차로 버섯이 도톰하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진안의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에서 지난해 목이버섯 현유품종의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50만봉 이상 생산하여 전국에 납품하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 농산물가공창업교육 식품가공기능사 자격과정 추진

장수군은 농산물가공창업교육으로 식품가공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식품가공기능사는 농·축·수산식품가공 산업현장에서 제조·가공 업무를 담당할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기술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군은 가격취득을 희망하는 교육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3층 강의실에서 매주 월·화요일 총 10회에 걸쳐 필기과정 교육을 진행 한다.

필기과정 교육은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 및 기계 기초이론, 총괄평가 순서로 추진하며 실기는 곡물, 두류, 축산물, 수산물, 과채가공, 식품감사 실습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중 실기과정 5회를 추진 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은 "본 교육을 통해 기존사업장의 가공제품 품질향상과 예비창업농가의 농산물 가공역량 강화로 장수군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7일 희망비전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 위촉

외부 전문가와 군민 등 19명 2021년까지 자문역할

무주군은 7일 희망비전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희망비전 자문위원(임기 2년)은 농업과 지역개발, 생활복지, 관광, 환경생태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군민 등 총 19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지역의 균형과 중·장기 발전을 비롯한 균형 주요시책 및 현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일 무주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위촉식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해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하셔서나 농사를 지

으시는 분, 복지나 문화예술, 경제 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뛰어들어 거라 굉장히 든든하고 기대도 된다"라며 "희망비전이라는 말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순열 위원장(전북대 농경제학과 교수)은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이 행복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라며 "납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기관·단체장협의회 축구종합센터 유치 등 논의

장수군은 7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김종문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 박정원 장수경찰서장, 정동일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 등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현안 등 공유를 통해 관내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2019 장수경찰서 교통신전 기본방향, ▲소방 활동로 확보, ▲미세먼지 저감조치, ▲장수사랑상품권 이용, ▲국민안전 실천운동 추진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다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이 2019년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종합 10위로 급상승한 것은 주민, 공직자, 기관단체장이 한 뜻으로 군정에 적극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덕"이라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1,350억 의결

장수군은 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위원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분야별로 농정분야 470억원, 축산분야 347억원, 귀농및공동체분야 298억원, 산림분야 74억원, 농업기반분야 35억원, 농업기술분야 126억원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1254억원보다 7% 증액된 1350억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농림·축산 식품사업 신청 예산은 농림·축산 식품사업 지침에 따라 지난 1. 2월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공고로 신청된 사업을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상정된 것이다.

신달호 부군수는 "자연재해, FTA 시장 개방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특성과 농업인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www.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